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 **

- 이론적 고찰 중심으로 -

강 상 우***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다. 오늘날 사회복지지는 실증주의 연구 방법에 경도(傾倒)되어 있다(이른바 methodolatry = method + idolatry라고 불리는). 실증주의는 계량(計量)화로 인해 영성이나 종교를 배제한다. 그러나 기독교사회복지지는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을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나 종교를 배제하는 (논리) 실증주의 연구방법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연구방법으로서 한계를 지닌다. 그렇다면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음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1) 실증주의 연구방법이 유일한 연구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복지지에 있어서 '많은 종류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연구방법들에 대해서 고려해야만 한다. (2)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신앙에 근거한 학문적 정체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3) 그리고 연구자(월버와 월슨의 경우)들이 자신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세계관(신앙)과 학문의 통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은 특정한 연구방법에 경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세계관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다"라고 한 것처럼, "모든 연구방법 또한 하나님의 것"인 점을 기억하자.

주제어: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세계관, 연구방법, (논리)실증주의

* 본 연구는 2011년 11월 12일(토) 제28회 기독교학문학회 대학원생 분과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귀한 논평을 해주신 양혜원(총신대)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양 교수님은 과거 사회복지학이 양적 연구방법에 경도되었다면 오늘날 기독교사회복지학이 문헌 고찰에 경도되어있음을 지적해 주셨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방법론 숭배(methodolatry)' 즉, 어떤 특정 연구 방법에 경도되지 말아야 하며, 연구주제(문제)에 맞는 연구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 백석대학교 기독교사회복지학 박사과정수료

2011년 08월 08일 접수, 2012년 03월 11일 최종수정, 03월 21일 게재확정

I. 머리말

현대 주류학문의 연구방법은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 계량화를 추구하는 양적연구 방법이 대세다. 거의 양적 연구방법으로 경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학문적 경향은 모든 현상을 수치화, 계량화함으로써 영성이나 정신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고, 계량화할 수 없는 대상이나 현상을 학문의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류학문의 주류 연구방법인 양적 연구방법은 다른 연구방법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연구현장에서 연구방법의 계도화(ghettoization)의 경향을 보여 왔었다.¹⁾ 특정 연구방법의 계도화라는 사회복지학계의 현실 때문에 경험하게 된 어려움에 대한 한 연구자의 고백을 들을 수 있다. 연구자가 그 당시에 연구방법 때문에 겪은 경험을 길게 인용해 보기로 한다.

논문을 투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투고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받아보고 나서 역자[유태균 교수]는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실증연구이면서 연구가설도 없는 연구가 어떤 학문적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학술지에 실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한 심사위원의 말을 인용한다면 아마도 심사평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두 차례에 걸쳐 서면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해 본 결과, 역자는 논문을 심사했던 심사위원들과 역자 간에 연구방법론에 관한 입장에서 너무도 큰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더 이상의 설득과 의견교환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역자는, 연구자들 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연구방법 이외의 다른 연구방법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연구방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도 필요하다는—물론 전혀 새로운 것은 없으나 언제부터인가 잊어버리고 있었기에 적어도 역자에게는 너무도 새롭게 느껴지는—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수 있었다(유태균, ‘역자서문’ in Padgett, 2001: 5-6).²⁾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의 문제는 위의 유태균 교수가 당시 자신의 연구방법

1) “자연과학적 방법의 승리를 들 수 있다. 사람들은 과학혁명을 통해 자연과학적 방법이 인문과학적 방법들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급기야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연구되지 않은 연구들을 무시하기에 이른다. 어떠한 연구결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양승훈, 2010: 114).”

2) 계속해서 유태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우리는 ‘내가 모르는 연구방법이기 때문에 곧 터무니없는 연구방법’이라는 비판을 통해서 연구방법론에 관한 우리의 무지를 드러내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수없이 반복하고 또 목격하게 될 것이다(유태균, ‘역자서문’ in Padgett, 2001: 6).”

때문에 사회복지학계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첩첩산중(疊疊山中)의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유 교수는 그래도 기독교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보다는 주류 학문에 속하고 과거에 비해 지금은 한국의 사회복지 연구방법의 환경이 바뀌어서 질적 연구방법은 일반사회복지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주류사회복지학의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주류와는 (저)멀리 떨어진 학문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³⁾(사실 본 연구자도 유사한 경험을 직접 해 보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연구자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양적 연구방법으로 대표되어지는 실증주의적 주류학문의 연구방법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지니는 학문적 정체성에 맞는 연구방법을 모색하여야만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 조금이나마 답하고자 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적이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은 그 명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와 사회복지학이라는 두 영역의 학문이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학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독교사회복지학 = 기독교학(인문학 · 신학) + 사회복지학(사회과학 · 과학)

기독교사회복지학이라는 명칭의 중심이 되는 두 단어, ‘기독교’와 ‘사회복지학’을 살펴보면 기독교는 종교체계로 신앙(종교)이라는 부분에 속하는 영역인데 비해, 사회복지학은 과학(사회과학)의 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학은 일반적인 학문의 분류상 인문학에 속하는 영역인 반면에,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영역의 한 분야다. 이는 일면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이라는 학문은 신앙(종교)과 학문(과학)의 통합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다른 일면에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을 의미

3) 최무열(2008: 9) 교수는 자기 제자의 경험을 이렇게 쓰고 있다. “언젠가 필자에게 사회복지 교육을 받고 대학원에 진학한 제자 한 명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전화를 해왔다. 다음 아니라 말제시간에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기독교적 배경에 대하여 설명하던 중 담당교수가 화를 내면서 ‘어떤 근거에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이 기독교에서 유래했다고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근거 없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하더라는 것이다.”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적 성격을 지니면서 동시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기독교사회복지학의 경우, 어떤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론부터 미리 언급하자면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은 한 마디로 연구방법의 통합(an integration of research method)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즉,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연구방법의 통합(Integration of Research Method based on Christianity World-view)⁴⁾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져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다.⁵⁾

1. 연구문제

본 연구를 위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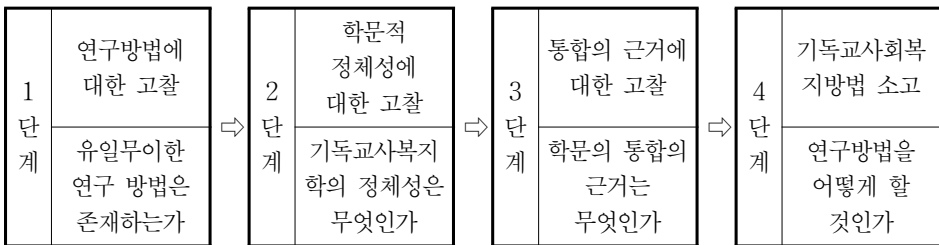
- 연구문제 A :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연구방법이란 존재하는가.
- 연구문제 B : 기독교사회복지학이란 학문적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 연구문제 C : 무엇에 근거하여 학문의 통합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2. 연구과정

1단계에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연구방법이 존재한다면 연구방법

-
- 4) “통합적 접근의 개념은 사회복지학의 이론(theory), 연구방법(research method), 학문접근방법(approach), 실천 방법(practice method) 등에서 각각 다른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론에서의 통합적 접근은 이론적 분석틀-가령, 복지국가의 발달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묶어주는 이론적 틀-을 의미하며, 연구방법의 통합은 실증주의 연구방법과 비실증주의 연구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학문접근방법의 통합은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유기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천방법의 통합은 개별지도, 집단지도, 지역사회조직을 묶은 일반주의적(generalist) 실천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적 접근의 개념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른 각각의 상이한 의미에서 유의함이 요구된다(오정수, 1997: 132).”
- 5) “이와 같이 기독교적 학문 연구란 기독교 신앙과의 외형적 관련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학문 연구가 기독교적이 되게 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 할 수 있다. 학문 연구의 전 과정, 즉 학문 연구의 의미, 과정, 방법, 목적, 응용, 심지어 그 동기까지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독교적 학문 연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양승훈, 2010: 77).”

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자든지 이 절대 유일무이한 연구방법을 맹목적으로 좇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 유일무이한 연구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다른 대안적 연구방법의 추구가 가능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다른 연구방법에 대해서 개방적인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1단계에서 다루고자 한다. 특히 현 주류 사회복지학의 대세인 과학적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으로 대표되는 양적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은 기독교사회복지의 연구주제나 연구 방법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3단계에서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이 기독교(신앙·인문학)와 사회복지학(과학·사회과학)의 통합을 추구하는 학문이라면 오늘날 논의되어지고 있는 통섭(統攝: consilience 또는 통합, integration)을 추구하는 연구자들의 통합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연구방법의 통합에 있어서 통합의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 단계들에서 얻은 연구들의 함의(含意)를 통해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논구할 것이다. 본 연구과정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1] 연구과정

II.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

1. 연구문제 A :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절대적인 연구방법은 존재하는가

과학혁명과 과학의 눈부신 외형적 성과로 인해 과학은 우리 삶의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삶의 편리와 외형적 성과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과학이 지니는 순수한 자리에서 벗어나 주의화(主義化 ismization)되고 이데올로기화(ideologization)되어 과학주의(scientism)라는 형태로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하였다는 점이다. 학문의 연구방법의 영역에 있어서도 과학주의는 과학적 방법론(논리실증주의적 방법론, 또는 방법론적 환원주의로도 불린다)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적 방법만이 총체적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Haught, 2003: 27).⁶⁾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인 과학주의가 자연과학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과학이나 다른 학문의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증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즉 사회과학자들 중에는 방법론상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차이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김환준, 2004: 43-44).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학에는 “단 하나의 논리밖에 없으며, 과학이라는 이름을 추구하는 모든 지적 활동은 이 유일한 논리를 따라야만 한다(Newman and Kreuger, 2003: 73; 김환준, 2004: 43-44 인용).” 과학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연구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적 환원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적 연구방법” 또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라는 연구방법의 대유행을 가져왔고, 이러한 결과로 사회과학에 있어서 계량화, 객관화, 탈가치화의 성격을 지니는 양적 접근방법으로 대표되는 연구 방법상의 경도(傾倒)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연구방법(론)이 연구의 거의 모든 것처럼 되어버린 “방법론 숭배, methodolatry(이는 method+idolatry의 조어다)”에 이르게 되었다(Janesick, 1994; Padgett, 2001: 169-170 인용; Artholzer, 2005: 89 참조). 그렇다면 과학주의로 대표되는 과학적 방법론, 즉 실증적 연구방법이 사회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 유일무이한 연구방법인가.

6) “과학주의는 과학이 총체적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가정이다. 과학주의는 ‘객관적’ 실재와 인간의 이성을 접촉시키는 완전히 믿을 만한 유일한 방법으로 과학을 떠받드는 철학적 신념(엄밀히 말하면 ‘인식론적’ 신념)이다(Haught, 2003: 27).”

1) 실증주의(實證主義)에 대한 재고

사실 실증주의에 대한 도전과 재고 등으로 인해서 사회과학의 연구에 있어서 다양한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과학의 연구방법을 사회과학에 그대로 적용하자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Tashakkori and Teddlie(2004: 제1장과 2장 참고)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과거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바로 다음과 같은 실증주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다. 즉 (1) 존재론(ontology, 실재의 본질)적 측면에서 실증주의자들은 단일 실재가 있다고 믿었으며, (2) 인식론(epistemology, 인지주체와 인식객체 간의 관계)적 측면에서는 실증주의자들은 인식주체와 인식객체가 독립적이라고 믿었다. (3) 가치론(axiology, 가치의 역할)에서도 실증주의자들은 가치중립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믿었는가 하면, (4) 인과적 관계(causal linkages)에서는 실증주의자들은 결과에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동시에 일어나는 원인이 실재한다는 믿음을 지녔었다.

과거 주류를 이루었던 패러다임인 실증주의(논리실증주의 logical positivism)의 공리(axioms)들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들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바로 구성주의(해석주의, 자연주의)적 패러다임과 실용주의적 패러다임의 새로 등장한 것이다.

먼저 실증주의 패러다임과 비교했을 때 구성주의는 다음과 같은 공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구별이 된다 하겠다. (1) 존재론적 측면에서 구성주의자들은 여러 가지의 구성된 실재가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2) 구성주의자들은 인식론적 측면에서 인식주체와 인식객체가 분리될 수 없다고 믿는다. (3) 가치론에서는 구성주의자들은 연구가 가치 구속적이라고 믿으며, (4) 인과적 연계에서 볼 때 구성주의자들은 원인과 결과의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또 다른 패러다임인 실용주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으로써 앞서 언급한 실용주의 또는 자연주의와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을 볼 수 있다. (1) 양자택일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실용주의 관점은 방법, 논리 그리고 인식론의 측면에서 실증주의와 구성주의 간의 강제 선택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실용주의는 공약불가능성 테제의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양 관점을 포용한다. (2)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채택한다. 실용주의자들의 주장은 흑백 대비(이원론 대 일원론, 객관적 관점 대 주관적 관점)를 거부한 채, 과학적 탐구란 ‘형식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과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문제를 연

구하는 과정을 넘어서서 인식론적으로 객관적·주관적 지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다. (3) 가치론적 측면에서 실용주의자는 개인적 가치체계에 따라 연구하고 싶은 문제를 결정한다. 즉 연구해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연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실증주의자들이 탐구행위와 가치중립적(value-free)이라고 믿는 것이나 이에 반해서, 구성주의자들이 가치 구속적(value-bound)이라고 믿는 것과는 구별되어지는 부분이다. (4) 존재론과 인과성에 대해서 고려할 때에 실용주의자는 인과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히는 규정할 수 없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실증주의, 구성주의, 실용주의적 패러다임의 주요한 관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표1〉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내 세 가지 주요 패러다임 비교

패러다임	실증주의	구성주의	실용주의
인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 • 인식주체/객체 이원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 • 인식주체/객체분리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주관적
가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중립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치구속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해석시, 가치의 역할 인정
존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진한 실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 실재 인정 • 최상의 성과 산출하는 설명 선택
인과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과 결과보다 선행/동시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실체는 동시에 서로를 조형함 • 원인-결과의 구분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명확히 규정할 수 없음.

자료: Tashakkori and Teddlie, 2004: 49 표 일부 수정⁷⁾

연구방법의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패러다임의 등장은 등장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연구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각각의 패러다임이 지니는 장점을 통합을 피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주류를 이루었던 실증주의(논리실증주의)적 패러다임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성주의(해석주의, 자연주의-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됨)나 실용주의적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들 패러다임간의 갈등에 대해서 화해를 시도하려는

7) Tashakkori and Teddlie(2004)는 패러다임으로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실용주의를 거론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후기실용주의를 제외한 후에 재구성하였다.

화해론자들의 등장 등으로 인해 각 패러다임간의 논쟁의 종말과 더불어 각 패러다임간의 통합이 연구방법들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각각의 연구 패러다임이 지니는 장점은 인정하면서 어느 특정한 패러다임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연구문제와 연구과제에 맞는 방법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 대해서 타사코리와 테들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패러다임 논쟁에서 화해는 여러 분야의 연구 개발에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배타적으로 하나의 방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연구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Tashakkori & Teddlie, 2004: 23).”

2)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경도(傾倒)에 대한 재고

과거 실증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치우침은 구체적으로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에서의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경도현상으로 나타났다. 양적 연구방법은 모든 것을 수량화, 계량화하고 탈(脫)가치화를 추구하는 연구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에 의하면 계량화가 불가능 한다거나 수량화가 불가능한 것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역할을 하였다.⁸⁾ 탈가치화를 내세우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과거 과학주의의 영향으로 연구방법에 있어서 “과학적 연구방법, 또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양적 연구방법”이라는 도식을 보일만큼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경도⁹⁾를 보였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학문의 현장에서의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경도의 모습을 해리 루이스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8) 서머(Shermer, 2008: 208)는 극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신 존재 물음을 보자.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의 기준이 무엇일까? 만일 신 존재를 경험적 증거로 결정할 수 있는 과학적 물음으로 만들고 싶다면, 신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세우고 신 존재의 시험 가능한 결론에 이르도록 해 줄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험과학에서는 ‘귀무가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9) 홍경준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와 정책 영역에서는 질적 방법이 보다 더 선호되어 왔으며, 사회사업의 실천 영역에서는 양적 방법이 더 선호되어 왔다고 한다.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도입 경로상의 차이 때문이라고 한다. 양적 연구방법은 미국에서 선호되어 왔었는데 미국의 영향을 더 받으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둘째로는 책임성의 문제와 더불어 셋째로는 양적 자료의 획득가능성이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홍경준, 2000: 125).

과거 사회과학에서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회와 인간을 통찰력 있게 관찰하고 다양한 현상 이면에 있는 의미를 위대한 이야기로 조합하는 능력을 가진 학자를 수준 높은 사회과학자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들이 종신교수직에 임용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통계적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일이 되었고 교수로서 명성을 얻는 일도 매우 어려워졌다(해리 루이스, ‘추천의 글’ in Willard ed. 2011: 8).

우리나라의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경도 현상을 보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홍경준은 『한국사회복지학』에 게재되었던 5,028개의 논문[2002년 가을호(통권 50호)까지]에 대한 내용분석을 시도한 후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양적 연구방법에 대한 지나친 편향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홍경준, 2002: 31)”고 지적하였다. 김동배와 이희연 또한 “최근까지 사회복지실천의 연구방법은 특정변수의 t값과 p-value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통계기법에 치중된 양적 연구에 편향되어 왔다(김동배·이희연, 2003: 29)”고 지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경도가 갖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먼저 계량화와 수치화, 탈가치화 등으로 인해 영성이나 가치개입적인 유익한 도구들을 학문의 영역에서 추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김기덕(2003: 36-37)은 “실증주의가 인간(human-being)이라는 대상을 다루는데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사회복지 전문직이 가지는 고유한 실천성과 관련된 지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실천의 기술과 현장에서 계량화와 수치화, 탈가치화로 배제되었던 기술들이나 실천방법에 대해서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미영은 사회복지실천에 보다 적합하고 의미 있는 지식의 지평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예술성을 탐구하고 이를 유용한 지식으로 수용(고미영, 2003: 45-79)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10)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양적 방법과의 비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기억할 점은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학분야 저작상(맥커버상, 소로킨상, 밀즈상 등)을 받은 학자들이 공통점은 대부분이 질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즉 질적 방법은 대가(大家)들이 채택하는 방법이며, 양적 방법은 젊은 조교수나 박사과정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법이라고 인상적 수준에서 정의해도 될지 모르겠다. ... 그런 의미에서 질적 연구방법은 장인(匠人)생산(craft production)에, 양적 연구방법은 대량생산(mass production)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열, 2008: 35-36).”

이안 바버(Ian Barbour)가 자신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천문학자 에딩턴(Arthur Eddington)이 들려주는 우화는 양적 연구방법(양적연구방법에서 척도가 지니는 문제점)이 지니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방법론이 지닌 문제점 때문에 논리-실증주의를 기반으로 한 양적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원리는 선택적이며 원리에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각 원리는 전체적인 경험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추출해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천문학자 에딩턴(Arthur Eddington)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우화를 들려주었다. 그물코의 크기가 7센티미터 이상인 그물을 사용하여 심해 생물을 채집 연구하는 어떤 심해 생물학자가 자기 그물을 가지고 여러 번 그물질하여 얻은 표본들을 살펴보고 심해어(深海魚) 가운데 7센티미터보다 작은 것은 없다고 결론지었다(Eddington, 1928: 16; Barbour, 2002: 38-39 재인용).

한편 해리 루이스에 의하면, 가장 성공적인 사회과학의 분야로서 사실상 계량화를 추구한 경제학조차도 2008년과 2009년 있어서 갑작스러운 시장 붕괴로 인해 그 성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해리 루이스, ‘추천의 글’, in Willard ed., 2011: 8)¹¹⁾될 정도로 실증주의적 양적 연구방법의 한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연구방법에 대한 개방적(開放的) 자세

여러 종류의 패러다임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연구자들에 의한 화해와 더불어 통합의 모색이 추구되어지고 있고, 또 연구방법에 있어 양적 연구방법으로 경도된 것에 대한 도전과 반성이 학계에서 이루어졌다면, 연구방법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절대적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모든 연구방법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지녀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방법론이 연구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방법론 숭배’를 벗어나, 특정 연구방법에 치우치는 현상에서 벗어

11) 맨스필드(Harvey Mansfield)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실과 가치의 구분이란 ‘실증주의’라는 이름으로 느슨하게 알려진 철학 사조로, 분별 있는 사람들은 이를 결코 신뢰한 적이 없고 시대의 흐름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사조다”(Mansfield, 2010: 85); 아얄라(Francisco J. Ayala)는 다음을 지적한다. “과학은 세상을 이해하는 매우 경이로운 방법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경로는 문학, 음악, 미술, 철학적 성찰, 종교, 계시 그리고 일상의 경험 등 참으로 다양하니 말이다(Ayala, 2011: 10-11).”

나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개방이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의 견해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파이어아벤트(Paul Feyerabend, 1987: 348)는 “만일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길 원하거나, 혹은 우리의 물리적 환경을 지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관념이나 모든 방법을 이용해야지, 그것들 중에서 선택된 몇 가지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과학 이외에는 지식이 없다는 주장—과학 없이는 평안이 없다—은 또 하나의 새로운 가장 편리한 우화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어떤 연구방법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anything goes(무엇이든지 가능하다)”를 말하였던 것이다. 월러스틴(I. Wallerstein)도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할 때에 Rethinking에서 Unthinking 그리고 Open의 단계를 이야기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과학의 패러다임이 재고(rethinking)에서 탈피(unthinking)의 단계를 넘어 개방(open)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이는 『지식의 불확실성(The Uncertainties of Knowledge)』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적 사회과학이라는 통합학문에 도달하기 위한 개방성을 말하고 있다(유희석, ‘옮긴이의 말’ in Wallerstein, 2007: 246).

폴킹혼(Donald Polkinghorne)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연구방법은 바르게 사용하는 것만으로 제대로 된 연구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 인문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정해진 방법은 없다. 이 책에서 취하는 입장은 방법과 논리에 관하여 다원주의적이다. 연구자가 사용할 수 있는 탐구체계는 다양하다. 연구자는 하나의 도구에 익숙해지고자 노력하기 이전에—그 도구가 통계적 귀납이든, 실존주의—현상학적 기술이든 또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자신이 제기한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합한 탐구체계를 제대로 선택하고자 노력할 것이다(Polkinghorne, 2003: 395).

강희철과 김미옥(2003)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사회현상의 본질과 실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론이나 패러다임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제시한다.” 오정수(2002: 43)는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사회과학의 개방에 따른 사회복지학의 인식론과 연구방법상의 개방이 요구된다. 둘째, 사회과학도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학문의 주관적 관점을 추구하기 위해 객관성이라는 가면을 사용하여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셋째, 비실증주의 연구방법에 대한 치밀

한 학문작업이 보다 진지하게 시도되어야 하겠다. 넷째, 개별 연구자의 학문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학문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학회와 연구자들이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각각의 학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김경직(2004: 241-271)도 다음과 같이 지적한 적이 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한 수단이나 측면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God gives us various methods to know the truth. A problem comes if one sees on means or aspect as absolute).”

2. 연구문제 B :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정체성(正體性)¹²⁾은 무엇인가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소고의 경우에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아는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기독교사회복지학이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의 물음을 통해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등에 대한 범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독교사회복지학이 다른 학문과 구별되어지는 부분이 연구방법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기능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박종삼 교수와 김기원 교수의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종삼은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을 위해 종교사회학적 접근을 모색한다(박종삼, 1996: 7-24).¹³⁾ 특히 힐러리(G. A. Hillery Jr.)의 “진리의 유형”에 근거하여 교회사회

12) 참고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성격규명이 어려움 점에 대해서 인접한문인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규명의 어려움에서 찾을 수 있다. 강희천 교수는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기독교교육학’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애매(曖昧: ambiguous)하며, 모호(模糊: vague)함에 있다. b) 기독교교육학의 ‘지식’(knowledge)의 형태에 있어서, 계시적 지식과 과학(경험적, 실증)적 지식간의 혼합의 문제, c) 그리고 ‘신학적 기반’(theological foundation)이 일정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점에 있다(강희천, 2002: 제1장 참조).

13) 박종삼(1996: 7)은 “한국에서 교회 사회사업은 아직 정확한 이론적 틀을 가지지 못한 채 전체 사회와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 속에서 종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교회사회사업의 이론화는 전체 사회 속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종교 사회적 관점(social-religious perspective)의 수용과 교회 내의 경험축적을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박종삼은 a) 교회사회사업의 동기는 순수한 사회사업의 동기보다는 신앙적 동기가 강하다. 그러므로 신학적, 사회사업적 접근을 동시에 해야 한다. b) 교회는 사회봉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social service agency)이 아니다.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종교적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사회봉사(사회사업)는 부차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c)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

사업학의 정립을 시도하였다(Hillery, 1986: 159-170). 힐러리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나 사물을 관찰하는 인식자와 인식의 대상을 두 개의 큰 변수로 보고 있다. 인식자의 인식은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인식(認識)으로 구분되어 하위변수를 이루고, 인식의 대상인 실체는 형이상학적 실체와 형이하학적 실체로, 두 개의 하위변수가 된다. 이러한 객관, 주관, 형이상학, 형이하학의 네 개의 변수는 <표2: 진리의 유형>에서 보듯이 네 개의 독특한 진리의 유형, 곧 과학적 진리(형이하학+객관), 신학적 진리(형이상학+객관), 감각적 진리(형이하학+주관) 그리고 신비적 진리(형이상학+주관)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사회사업이 주목하여야 할 일은 인간의 사회복지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유형의 접근이 다 필요하다는 사실이며, 이로써 종교와 과학의 상호가능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서 단지 진리의 네 가지 유형 중 어느 것이 강조되었던 때는 있었어도, 네 가지의 진리의 유형이 항상 존재하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박종삼(2003: 16; 2000: 50)은 “종교의 궁극적 해석의 틀은 힐러리의 진리의 유형에서 신학적(철학적) 진리, 신비적 진리의 틀을 갖고 과학적 진리와 감각적 진리의 한계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교회사회사업의 독특한 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본다.” 박종삼(1987: 76)은 또한 “힐러리의 네 유형의 진리는 네 개의 별개의 진리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전체성을 네 개의 다른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종교와 과학은 적대적 관계 아니고 동일한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두 개의 강력한 도구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진리는 그것이 과학적 인식방법에서 온 것이든, 아니면 신학적 진리에서 온 것이든 어느 하나를 배제할 경우에는 전체적이며, 온전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종삼(2003: 22)은 진리의 총체는 네 가지 유형의 진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총합하여 조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회봉사는 전문적 사회사업이 아닌 준(準)전문 서비스 혹은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서비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d)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교회사회사업학을 정립하려고 한다면,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 교회사회사업은 과학만도 아니고 종교만도 아니며 과학과 종교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 틀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교회사회사업의 특수한 속성 때문에 교회사회사업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려고 한다면 교회의 사회봉사에 대한 종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박종삼, 2000: 38-58).

〈표2〉 진리의 유형¹⁴⁾

구분		인식의 방법	
		주관적 인식	객관적 인식
실체적 유형	형이상학	신비적 진리	신학적 진리
	형이하학	감각적 진리	과학적 진리

자료: 박종삼, 1996: 12; 2000: 45; 1987: 53-81; 2003: 22.

김기원(2001a, 2001b)은 기독교 사회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의 근거로 기독교사회복지는 경험과학이나 비경험과학의 어느 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특징을 겸비한 “최적 경험과학”(Optimizing Empirical Science)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과학은 크게 경험과학과 비(非)경험과학으로 나뉘고, 경험과학의 경우 다시 크게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특정 분야 학문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구분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일부 학문의 경우 특징상, 종합 과학적(綜合 科學的: multidisciplinary)이고, 학제간(學際間: interdisciplinary)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학문의 구분	
과 학	-- 경험과학 -- 비(非)경험과학
	-- 자연과학 -- 사회과학 ---- 기술적 사회과학 분석적 사회과학
	-- 신학, 윤리학, 순수과학(인문학)

새로운 학문의 구분	
과 학	-- 경험과학 -- 비(非)경험과학 -- 최적(最適)경험과학
	-- 자연과학 -- 사회과학 : 신학, 윤리학, 인문학.
	-- 기술적 사회과학 (고고학, 인류학, 사회학) -- 분석적 사회과학 (사회복지, 경제학, 법학)
	기독교사회복지학, 기독교교육학.

자료: 김기원, 2001a: 18-19; 2001b: 201-203. 약간 수정 후 통합함.

[그림2] 학문의 종류

14) 참고로 [실증자료 및 논리와 사용여부에 따른 지식의 분류]

		논리	
		비논리적	논리적
실증자료	사용 없음	신비주의(Mysticism)	합리주의(Rationalism)
	사용 됨	경험주의(Empiricism)	과학(Science)

자료: Jensen, 1989: 147; 김환준, 2004: 22 <표1-1> 재인용.

이들 학문 분야의 경우, 학문상 의도한 목적을 최대한 가장 적절히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 분야가 이해와 분석을 위해 관련됨으로써 경험과학과 비(非)경험과학으로 분류되는 학문 분야들을 체계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 즉 경험과학이나 비(非)경험과학의 어느 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특성을 지닌 제3의 학문 분야(the Third Disciplinary)가 탄생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경험과학과 비(非)경험과학 양자의 특징을 겸비한 ‘최적 경험과학’에 속한다. 기독교사회복지¹⁵⁾가 바로 제3의 학문 분야로 최적경험과학의 성격을 띤다(김기원, 2001a: 18-19; 2001b: 197-228)¹⁶⁾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학만이 지니는 구체적인 특성은 무엇인가. 교회사회사업과 관련하여 박종삼이 제시하고 있는 독특성 중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사회사업의 동기에 있어서 순수한 사회사업의 동기보다는 신앙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신학적 사회사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김기원(2001b: 205)도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 중에서 주의해서 볼 것으로는 (1)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규범지향(規範指向: normative orientation)적이라는 점과 (2) 가치중립(value-free)적이라기보다는 가치개입(價値介入: value-judgment)적인 학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 때문에 연구문제를 선정할 경우나, 명제나 이론의 구성과정에서,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의해야 할 것은 가치개입적이라고 할 때의 가치는 사람에 따라 변하는 가변적인 가치가 아니라, 절대불변의 보편적 가치를 의미한다는 점이다.

위 박종삼과 김기원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한 마디로 진리의 포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한(과학적 방법론)

15) “기독교사회복지학의 학문적 특성”에 대해서는 김기원(2001b: 205)을 참고하라.

16) 여기서 최적경험과학이란, 경험과학의 합리성뿐만 아니라, 비(非)경험과학의 도덕, 계시나 창외와 같은 초(超)합리성(extra-rationality) 및 감정과 같은 비합리성(irrationality)도 체계적 분석의 근거가 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그러한 영역의 하나로 최근 학문적 정립을 시도하고 있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이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사회복지라는 사회과학의 경험적 합리성뿐만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계시나 판단과 같은 초합리성 그리고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감정과 같은 비합리성을 학문적 이론과 실천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최적경험과학에 속한다(김기원, 2001a: 18-19; 2001b: 202).

진리의 모색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니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식의 추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이경직, 2004: 241-271 참조). 즉, 기독교사회복지라는 것은 세상의 진리(논리실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포괄적인 진리를 요한다. 현대학문의 추세인 과학적인 진리, 과학적 방법론에 의해 얻어지는 객관적인 진리만이 아닌, 신앙적인 진리, 비록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앙 즉 신학적 진리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는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앙과 학문이 진정한 통합을 이룰 때에 비로소 기독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숙종의 다음의 글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지식의 종합은 인간이해의 공통개념, 가시적인 자연세계, 기술과 재능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인간의 모든 활동, 인간의 영적인 경험의 대상이 되는 인간, 자연, 하나님과의 상호관계성에 정립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영역의 지식의 소재(素材)인 자연세계의 자식-‘자연’, 인간의 모든 사고와 경험의 주체인-‘인간 자신’, 그리고 인간의 영적 세계의 대상인-‘하나님의 우주적 진리’가 종합하여 일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식의 종합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과 신령한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초월적 세계와 인간의 영적 세계를 탐구하는 신학과, 그리고 인간의 사회 환경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실천적 지식과 소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학의 통합과 합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이숙종, 2005: 35-36).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그 자체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신학적 사회사업적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며, 규범지향적이라는 점과 가치중립적이라기보다는 가치개입적인 학문이라는 점이다. 물론 여기서 가치란 김기원이 밝힌 것처럼 절대 불변적 가치를 의미한다. 가치개입적이며 규범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신앙적 동기가 강한 기독교사회복지학은 탈(脫)가치적 가치중립을 내세우는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물론 연구 주제에 따라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3. 연구문제 C : 학문의 통합의 근거(根據)는 무엇인가

한동안 (사회생물학이나 진화생물학 등) 학계에서 회두가 되어 유행한 단어 중의 하

나가 바로 ‘통섭(統攝: Consilience 또는 통합 integration)이라는 개념이다. 기독교사회 복지학도 일종의 통합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기독교학과 사회복지학의 통합을 추구하기 때문에 과학계에서 통섭의 선두주자인 사회생물학자인 윌슨(Edward O. Wilson)과 통합심리학으로 유명한 윌버(Ken Wilber)가 주장하는 통섭 혹은 통합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통합의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통합은 두루뭉실한 형식적인 통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통합에까지 이르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1) 과학자 Edward O. 윌슨의 통합(統合) 근거

통섭이라는 개념을 유행시킨 윌슨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자. 윌슨의 통섭에 대한 견해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먼저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 1975)』에서 윌슨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사회생물학은 모든 사회행동의 생물학적 기초에 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여기에서 현대적 종합이란 모든 현상의 적용적 의의가 평가되고 그 다음 이것을 다시 집단유전학의 기초 원리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학과 기타의 사회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인문과학들과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현대적 종합에 포함됨으로써 생물학에서 파생되는 분과들 중 마지막 분과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회생물학이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사회과학자들의 기초를 다시 체계화하여 이들의 주제를 현대적 종합에 끌어들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이 과연 이런 식으로 진정 생물학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Wilson, 1994: 22).

몇 년 전 번역되어 소개된 또 다른 저서인 『바이오필리아(Biophilia)』에서도 윌슨의 통섭에 대한 관점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은 분석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기도 하다. 종합단계에서 과학은 예술 같은 직관과 비유적인 묘사를 이용한다. 초기분석 단계에서는 각 행동을 유전자와 신경 감각 세포 수준으로 분석할 것이다. 사실 이 유전자와 신경 감각 세포에서 동물의 행동이 기계적으로 도출된다. 그러나 종합단계에서는 이 생물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조차 복잡하고 난해한 사회생물학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깃털, 춤, 일상생활 등 흰색장식풍조의 외적인 특징은 이 새

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기능적인 특징이다. 우리는 인식과 감정을 놀랍고 즐거운 방식으로 바꾸는 총체적인 특징으로 이 새를 다시 정의할 수 있다(Wilson, 2010: 90).

그렇다면 윌슨이 통섭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윌슨은 무엇에 근거하여 학문 간의 틈을 메우려고 하는가. 윌슨(Wilson, 2000: 16)은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Sociobiology: The New Synthesis)』이었다. ‘인간: 사회생물학에서 사회학까지’라고 제목을 붙인 그 책의 마지막 장에서, 나는 현재 동물들에게 합리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생물학 원리들을 사회과학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힌다. 통섭 세계관의 요점에 대해서 “인간 종의 고유한 특성인 문화가 자연과학과 인과적인 설명으로 연결될 때에만 온전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여러 과학 분과들 중에서 특히 생물학은 이런 연결의 최전선에 있다”(Wilson, 2005: 460)고 언급한다.

윌슨 자신이 시도하고 있는 통섭은 바로 과학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학문을 하나로 묶으려 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전공분야와 관계가 있는 생물학을 최전선으로 하여 학문 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윌슨의 제자인 최재천(최재천·주일우, 2007: 8)은 “원래 통섭이라는 말은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의 책, 『Consilience』를 번역하면서 고안된 용어이다. 이 책에서 윌슨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이 모두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유전학, 진화학, 뇌과학을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윌슨의 통섭은 구체적으로 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으로서, 과학적 방법 즉 실증주의적 방법론인 방법론적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비물질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환원주의에 입각한 통섭의 프로그램이 바로 윌슨이 통섭에서 추구하고 있는 통섭의 세계관인 것이다. 다른 학자들에게서도 이와 같은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윌슨이 지금 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그는 비물질적 과정을 기술하는 어휘들을 모두 물질적 어휘들로 환원시킬 수 있으며, ‘진리’도 그러한 환원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가?(배석한, 2007: 255).

윌슨에게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은 평등한 것이 아니다. ... 환원주의는 윌슨의 통섭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방법론이다(홍성욱, 2007: 277).

2) 통합심리학자 Ken 윌버의 통합(統合) 근거

통합심리학자로 알려진 윌버의 경우 무엇에 근거하여 통합을 추구하고 있는가.

거의 보편화된 관점[존재의 대사슬: the Great Chain of Being]에 따르면, 실재란 사물로부터 차례로 신체, 마음, 혼, 정신(영)에 이르기까지 서로 엮어 짠 여러 수준들로 이루어진 풍성하고 현란한 융단 같은 것이다. 각 상위의 수준은 그 아래 차원들을—존재의 일련의 동심 원환 내의 원환들을—“감싸거나(envelopes)”, “집어 놓는다(enfolds).”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내의 모든 존재와 사건들은 모두 서로 서로 엮어서 짜여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정신에 의해, 전능한 신에 의해, 위대한 여신에 의해, 도(道)에 의해, 브라만(Brahman)에 의해, 절대자 스스로에 의해 감싸지거나 접어 넣어지게 된다(Wilber, 2000: 26-27).

이정배(2008)는 켄 윌버의 통합론은 “종교의 공동 구조를 강조하고 그 토대 하에 근대세계관(과학)을 통합시키려했던 것이”(Wilber, 1998: 119; 이정배, 2008: 42-43 인용)라고 언급한다. 윌버의 책을 번역한 김철수는 “옌긴이의 글”에서 윌버의 통합론의 관심이 ‘공(空)’이라는 점을 언급한다. “윌버는 ‘서양은 서양 나름대로의 상대진리를 갖고 있고, 동양은 동양 나름의 상대진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동양은 절대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나의 관심은 동서양의 상대적 진리들을 ‘공(空)’이라는 근원적 맥락(절대 진리) 안에 적절하게 통합하는 일이고, 이러한 작업은 단편화된 지식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고 강조한다(Wilber, 1996; 김철수, ‘옌긴이의 글’ in Wilber, 2004: 504-505).” 또 다른 윌버의 책의 번역자인 조효남은 윌버가 탄트라불교/선/명상의 대가임을 지적하고, 윌버 자신의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윌버]는 20대 초부터 수련해온 탄트라 불교/선/명상의 대가이기도 하다. ... 그의 세계관은 소승불교의 연기적 윤회관, 대승불교의 중도공관(中道空觀), 화엄의 일승법계적 연기(一乘法界的緣起)사상과 완전히 회통하는 사상이다(조효남, ‘옌긴이의 글’ in Wilber, 2000: 365. 377).

통합이나 통섭을 말하는 연구자들이 연구자 자신의 통합을 위한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객관적이고 탈가치적인 것이 아니다. 통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통합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사상이나 세계관이다. 즉 연구자 자신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자기의 세계관에 근거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통합을 추구한다. 심지어 게임이론으로 통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통합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반증해 준다.

처음에 게임이론은 경제학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과학분야, 특히 인간의 본성과 행동에 대한 연구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제는 물질에 대한 연구(물리학, 화학 등)에서도 응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내 생각에 게임이론은 궁극적으로 아시모프(Issac Asimov)의 심리역사학처럼 모든 과학을 통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앞으로 차차 제시하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Siegfried, 2010: 7-8).

사실 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이라는 점, 즉 과학으로서 가치중립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학의 연구와 저서들의 제목을 보면, 페미니즘적 관점, 급진적 사회복지실천 등의 특정한 가치가 개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복지 사상사나 사회복지 철학과 윤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이란 기독교와 사회복지의 통합이다. 이는 기독교세계관에 의한 통합을 추구하여야 함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가치개입적이며, 규범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연관성 있는 지적을 하고 있는 신기영(2002)의 말을 들어보자.

사람이 어떤 실재를 안다는 것은 어떤 세계관에 근거한 특정 시각을 통해 그것을 이해하고 판단한 것을 신앙적 결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그 지식에 참여시킴으로써 그 실재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자는 그 신앙적 결단이 그 실재의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내려질 때만, 그 실재의 본질과 의미를 알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람의 앎은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완성될 수 있다. 사람이 어떤 실재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에도 신앙이 개입되고, 그 실재의 특성에 따라 그 개입의 영향은 다양하다(신기영, 2002: 80).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의 범주에도 기독교세계관이 적극적으로 침투해야 한다. 이는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모든 연구방법 또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세계관을 잘 드러내는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가 기독교연구자들에게 요

구되어야 할 것이다.

III. 기독교사회복지 방법에 대한 소고(小考)

1. 연구문제들이 지니는 함의

연구문제 A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유일무이한 연구방법이 존재하는가. 실증주의, 구성주의, 그리고 실용주의 등 다양한 패러다임이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과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서 연구문제와 연구주체에 맞는 연구를 위해 패러다임간의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양적 연구방법으로의 경도에 대한 연구 집단의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어느 하나의 연구방법에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연구방법에 대해 학자들은 개방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정 연구 방법이 연구방법의 모든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방법론 이상화로부터 연구자들이 벗어나고 있다. 연구문제 B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무엇인가.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정체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최적경험과학으로서 포괄적인 지식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증주의적 과학적 연구방법의 경우 객관화, 탈가치화, 계량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을 포함할 수 없다는 점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은 절대적 가치에 근거하는 가치개입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탈(脫)가치를 추구하는 연구방법은 그 자체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문제 C인 학문의 통합의 근거는 무엇인가에서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과학자(Edward O. Wilson)이건 통합심리학자(Ken Wilber)이건 간에 연구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자신들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는 통합이어야 하며, 통합의 범주에 연구방법에 대한 통합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기독교세계관에 근거를 둔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이 재고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2.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에 있어 재고(再考) 사항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의 모색에 앞서 재고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통합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점과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듯이, 모든 연구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방법이 기독교세계관과 반대되지 않는 한 연구방법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먼저,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에 있어서 기독교사회복지학은 기독교학이라는 인문학을 포함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사회복지학에 기독교학이라는 인문학이 포함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기독교사회복지학이 사회과학적 연구방법뿐만 아니라 인문학의 연구방법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백승균(2000: 99-100)이 ‘인문학의 개념정리’에서 “인문학은 연구의 대상을 내면화하여 인간을 목적 자체나 가치로 설정함으로써 획일적인 과학적 성격만을 떨 수가 없다.”라고 하였듯이 인문학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의 방법과 달리 인문학-인문학은 ‘해석’(interpretation)에 대한 학문(홍성욱, 2006: 213)-고유의 연구방법에 입각해서 연구되어야만 하는데 인문학의 연구방법은 해석학에 입각한 방법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인문학 중에서 그 분야가 기독교학이라는 것은 기독교학이 인문학 중에서도 종교학에 속하지만 종교학에 속하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구원의 진리와 성경적 가르침과 대립되는 것에 대해 배타적인 성격¹⁷⁾을 지니기 때문에 인문학의 해석학적 전통¹⁸⁾과는 차별된 해석학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사회복지학이 가치개입적 성격을 지닌다 할 때에 여기서의 가치란 성경이 말하는 가치로 절대적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차별화

17) 여기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할 때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만 한정하여 사용한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독교는 구원에 관한 것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학자들(대표 인물로는 Richard Mouw)이 Civil Decency를 말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18) 해석학의 분야는 (대략 연대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뉠 수 있다. (1) 성서주석의 이론: (2) 일반적인 문헌학적 방법론(Friedrich Ast, F. Wolf): (3) 모든 언어 이해에 관한 학문(F. Scheiermacher): (4) ‘정신과학’의 방법론적 기초(W. Dilthey): (5) 실존과 실존론적 이해의 현상학(M. Heidegger): (6) 신화나 상징의 배후에 있는 의미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회상적이고 상상과목적인 해석의 체계들(Paul Ricoeur)(Palmer, 1995: 64); 해석학적 이론의 다양성은 그 자체야말로 하나의 해석학적 원리를 제시해 준다. 즉 해석이란 해석자가 자신의 주제에 접근해 가는 문제에 의해 형성된다는 원리이다(Palmer, 1995: 108; 정기철, 2004: 14-15 참조).

가 요구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들에서 기독교사회복지학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해석(학)적 연구방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 해석에 대한 시도는 초자연적 해석(supernatural interpretation)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스도는 로고스(Logos)이시며(요 1:1), 하나님의 지혜(the Wisdom of God)이시므로(고전 1:24), 모든 철학과 그를 통한 모든 인문학의 연구가 가치의 중심, 또는 가치의 기준을 제공해 주시는 분으로서 그를 모셔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해석의 문제에 대하여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Byrne, 2005: 372).¹⁹⁾

그러면 기독교적 전통이 가지는 고유의 해석의 지평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신앙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다는 것이 일반계시와 특수계시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신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시에 대한 신앙이 기독교전통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신앙 없이는 기독교적 전통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계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적 신앙과 학문을 연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고도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된다. 왜냐하면 계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만물을 통해 드러나며 또한 모든 학문세계 역시 하나님의 권리를 드러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문영빈, 2003: 141-142).

신앙의 해석학은 교조주의(dogmatism)나 회의주의(skepticism)를 모두 거부한다. 교조주의는 자기의 해석을 절대화하는 입장이며, 회의주의는 자기의 해석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는 태도이다. 신앙의 해석학은 주어져 있는 텍스트를 존중한다. 그러나 자기의 해석학을 절대화하여 원(源)텍스트의 자리의 입장에서 서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목소리보다는 텍스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한다(김영한, 2006: 59).

두 번째로 확인할 사항은 “모든 연구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적 연구방법 그 자체가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연구방법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과학적 연구방법이 지니는 한계로 인해 다른 연구방법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 연구방법이 무익한 것으로 전적으로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과학이 우리의 삶에 편의와 유익을 제공하였던 것처럼 과학적 연구방법을 통해서 학문의 영역과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제공한 것 또한 사실이며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러 연구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

19) “개혁신앙의 공동체는 세계를 해석하는 데 자비와 겸손을 바탕으로 하는 해석학, 말하자면 신앙의 해석학(hermeneutics of faith)을 사용한다(Vonhoozer, 2001: 56).”

면서도 과학적 방법에 대해 평가절하(平價切下)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에 대해 <표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표3〉 기독교사회복지학 연구방법(Christian Welfare Research Methods)

기독교(계시적 지식)	사회복지(실증적, 과학적 지식)		
기독교학(인문학)	사회복지학(사회과학)		
해석적 연구방법	실증주의	반실증주의	실증주의+반실증주의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혼합적 연구방법

그렇다면 연구방법에 있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어떻게 구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사회복지학에 있어서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는 많은 사회복지학자들로 인해 연구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기존의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문학의 연구방법인 해석적 연구방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다. 앞에서 기독교해석학이 초자연적 해석학이며, 동시에 교조주의와 회의주의를 모두 거부하는 해석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석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왜냐하면 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의한 결과로 동성애에 대해 찬성하는 연구결과와 반대하는 연구결과가 동시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있어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생각을 선교학자 반 앵겐(Van Engen)의 견해에서 가져올 수 있다. 반 앵겐은 사회과학에서의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의 문제를 신뢰(trust)와 진리(truth)²⁰⁾의 문제로 바꾸어서 설명한다. 즉 타당성에 대한 질문을 신뢰로 바뀌어져야 하고 확실성의 요소는 진리의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한 것을 근간으로 신뢰와 진리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음은 반 앵겐이 제시하고 있는 신뢰(trust)와 진리(truth)에 대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20) “타당성과 진리를 구분해야 한다(Nash, 2003: 94 각주).”

신뢰(trust):

- (1) 연구자가 읽은 책은 적절하며, 그 자료출처는 수용할만한가?
- (2) 연구자는 논쟁에 대한 넓은 관점을 얻기 위해 충분히 폭넓게 읽었는가?
- (3) 연구자는 다른 관점들을 올바르게 읽었는가?
- (4) 연구자는 읽은 것을 이해했는가?
- (5) 저자들의 사용과 이해 혹은 쟁점에 대한 그들의 적용에서 내부적인 모순은 없는가?

진리(truth):

- (1) 주장하는 진술에 충분한 성서적 근거가 있는가?
- (2) 연구자의 주장이 교회사 전반에 걸쳐 다른 사상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신학적 주장들과 적절한 연속성이 있는가?
- (3) 변호하는 특별한 신학적 방향을 충분히 지지하고 있는가?
- (4)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의 신비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변증법적 긴장과 표면적 모순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가?(Van Engen, 2004: 34-35 재구성).²¹⁾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 그리고 양자의 연구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혼합적 연구방법에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도는 일반 사회복지학에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특히 양적 방법론은 신뢰도를 중시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중시한다는 점과 이에 반해서 질적 연구방법은 타당성의 확보를 위한 자료들에 더 비중을 준다는 점을 인식²²⁾하면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문제에 접근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해석학적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반 앵겐이 제시한 신뢰(trust)와 진리(truth)에 대한 각 항의 질문에 대해서 연구

21) 이를 구체적 기준으로, 계시적(Revelatory), 응집성(Coherent), 일관성(Consistent), 단순함(Simple), 지지도(Supportable), 외부적 확인(Externally confirmable), 상황적(Contextual), 행동적(Doable), 변혁적(Transformational), 적절한 결과의 산출(Productive of appropriate consequence)로 나타낸다(Van Engen, 2004: 35-36).

22) “계량적 연구자들은 타당성 있는 자료를 얻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실제에 있어 신뢰성(信賴性) 있는 자료를 더 강조한다. ... 반복 가능한 ‘경성적’ 자료는 ‘과학적’ 방법의 필수요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에 질적 연구자들은 신뢰성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타당성(妥當性)있는 자료를 강조한다. 타당성이란 연구자가 연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모습을 완전하고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Stainback & Stainback, 2000: 20).” 예를 들자면,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성(internal validity), 외적 타당성(external validity), 신뢰성(reliability), 그리고 객관성(objectivity) 각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질적 연구의 신빙성(credibility), 재연가능성(transferability), 감사 가능성(audit-ability 또는 dependability: 의존가능성), 그리고 확인가능성(confirmability)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Lincoln & Guba, 1985: 300; Padgett, 2001: 179; Creswell, 2008: 240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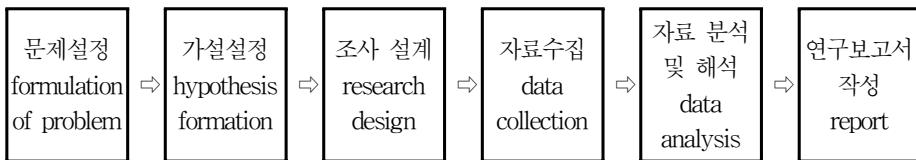
자 스스로가 응답할 수 있다면 그 연구는 신뢰와 진리를 지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그 연구가 타당도와 더불어 신뢰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看做)해도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4〉 기독교사회복지학 신뢰와 진리의 문제

기독교학(인문학)	사회복지학(사회과학)	
해석적 연구방법	양적 연구방법	질적 연구방법
신뢰(trust)	타당도(validity)	타당도(validity)
진리(truth)	신뢰도(reliability)	신뢰도(reli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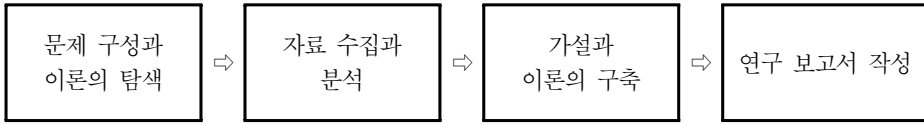
그렇다면 연구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먼저 순수하게 해석적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성경적 관점의 입양의 문제, 성경해석에 입각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성경에 충실한 연구여야 할 것이다(이 경우 문헌고찰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그런가 하면, 순수하게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에 입각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예로 들어 기독교사회복지실천모형개발의 경우 서베이(survey)를 통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에 관한 연구도 가능할 것이고, 델파이(delphi) 기법과 같이 전문가 집단을 통한 기독교사회복지실천 모형에 관한 연구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성경 해석에 근거를 둔 모형을 사회복지실천을 개발한 후에 이를 양적 접근방법이나 질적 접근방법으로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경우 혼합연구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양적 연구과정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2009: 80.

[그림4] 질적 연구과정



연구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더 중요시되는 것은 해석적 연구방법을 통한 연구결과 (또는 기독교세계관)들이 연구방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점이다. 양적 연구방법의 경우 과학적 수행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연구문제 설정, 가설 설정의 경우, 조사 설계를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특별히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요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점이다(이는 질적 연구방법이나 혼합연구방법의 수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마치 월터스토프(N. Wolterstroff)가 기독교세계관이 지배신념(control belief)으로 작용해야만 되는 것처럼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각 단계에서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쳐야만 한다.

IV. 맺음말

절대적이며 유일무이한 연구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Many Way of Knowing”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사회복지의 연구방법은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이듯, 모든 연구방법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선언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은 어떤 특정한 연구방법을 우상화하지 않고 다양한 연구방법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독교세계관에 근거하여 통합을 추구해 가야만 한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있어서 자유함을 지녀야 한다. 기독교세계관이 지배신념으로 작용하고, 또 규범적이며 가치개입적인 우리의 연구는 일반 학문분야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부스 외(Wayne Booth, Gregory G. Colomb, and Joseph M. Williams)등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어떤 가정²³⁾은 당신과 독자가 모두 참으로 수용하지만, 독자가 굳이 거부하고 나서는 경우도 있다. 가정이 자신들의 연구관행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논술

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당신이 속한 연구자 사회에서는 가정이 통용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연구자 집단별로 공유하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받아들여지는 가정이 다른 곳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독자가 당신의 가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는 당신의 증거를 거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증거가 참이 아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면 된다. …… 당신의 신념체계가 무엇인지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모든 논문은 결국 독자에 읽히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체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작성되어야 한다. 독자들은 어떤 종류의 논술을 받아들일까? 어떤 종류를 거부할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당신의 논술이 구축되어야 한다(Booth et al., 2000: 193, 201).

혹시 과학주의가 주류를 이루는 학문세계에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우리를 향해 한 목소리로 진정한 학문은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고 외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가치개입적(價値介入的)이고, 규범적(規範的)인 우리의 연구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가정(假定)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독교세계관을 지배신념으로 한 우리들의 연구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려야만 할 것이다.²⁴⁾ 사실상 이 세상의 어느 연구자도 가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²⁵⁾하기에 우리는 기독

23) “신앙적 가정(warrant)은 일반적인 가정과 전혀 다른 특징을 지녔다. 제퍼슨이 ‘이와 같은 진리는 자명하다’라고 주장할 때, 바로 이 가정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이때 자신이 계시 받은 진리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 받은 것을 토대로 어떤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은 참이다. 이것은 진리의 한 종류로서 그 어느 누구의 도전도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적 신념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Booth et al., 2000: 207).”

24) “유대적 혹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지성적 이해는 믿음, 소망, 사랑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믿을 수 있고, 소망으로 가득하며, 사랑스러운 학문의 방법이 존재하고 이것이야말로 학자들이 성취해야 할 과제다. 비록 불신자가 그런 방법의 학문을 ‘비과학적’이라고 분류할지라도, 그것은 무심한 객관성보다 인간본성과 사회생활에 대한 진리에 훨씬 더 가까이 접근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단지 생명에 대한 관찰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심지어 학자들도-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와 함께 근본적 종교 경험인 영적 죽음과 부활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부르기 때문이다(Berman, 2011: 417-418).”

25) 다음은 과학저널 또한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진화인류학자 그레고리 코크란(Gregory Cochran)은 동성애가 병원균에 의해 전파되는 일종의 전염병이라고 제안한다. 도시 남성은 농촌 남성보다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세 배나 되며, 전통적인 수렵-채집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코크란은 지적한다. 불행히도 동성애의 유발 원인을 전염성 병원균에 찾는 이 가설은 동성애 혐오론자들에게 악용당할 가능성이 너무 큰 탓인지 여러 학술지에서 논문 심사조차 거부당하고 말았다(전중환, 2010: 235-236).”; 브라이언트와 그의

교세계관이라는 가치의 명예를 스스로 질 때에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선언은 우리의 삶에서 유효하듯이 오늘날 학문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동료들(John Bryant, Linda Baggott la Velle, and John Searle)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금도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이 가치중립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과학을 바라보는 관점과 과학의 발견을 응용하는 방식은 분명히 가치와 관련된다(Bryant, la Velle, and Searle, 2008: 28).”

참고문헌

- 강희천 (2002). 『기독교교육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제1장 참조.
- 강희철·김미옥 (2003). “한국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고찰.” 『한국 사회복지학』. 55. 55-81.
- 고미영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정치성과 예술성.” 『상황과 복지』. 15. 45-79.
- 김기덕 (2003). “사회복지 지식의 인식론적 기초.” 『상황과 복지』. 15. 36-37.
- 김기원 (2001a).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나눔의 집.
- 김기원 (2001b). “기독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長神論壇』. 9. 197-227.
- 김동배·이희연 (2003). “사회복지실천의 생태체계 패러다임과 연구방법론에 대한 고찰(I).” 『연세사회복지연구』. 9. 27-58.
- 김영한 (2006). 『20C 세계관과 개혁신앙』.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김환준 (2004). 『사회복지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나남출판.
- 문영빈 (2003). “신앙과 학문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인문논총』. 10. 137-153.
- 박종삼 (1987). “인간이해에 있어서 기독교와 심리학.” 『한국기독교연구논총』. 53-58.
- 박종삼 (1996). “한국 교회사회사업학의 정립과 종교사회학.” 『연세사회복지』. 3. 7-24.
- 박종삼 (2000).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특히 38-58 참조.
- 박종삼 (2003). “교회사회사업의 학문적 정체성 정립방안.” 『교회사회사업』. 창간호. 9-33.
- 배식한 (2007). “가능한 통섭과 불가능한 통섭: 통섭과 무법칙적 일원론.” 최재천·주일우 편집.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243-272.
- 백승균 (2000). “인문학의 개념정립.” 대한철학회 편. 『철학연구』. 73. 99-116.
-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2009).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나눔의 집.
- 신기영 (2002). “기독교신앙과 지식의 통합.” 『통합연구』. 15(1). 73-92.
- 양승훈 (2010). 『그리스도인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 서울: CUP.
- 오정수 (1997). “사회복지학 접근방법의 이중구조와 정합적 접근 전망.” 『상황과 복지』. 2. 131-158.
- 오정수 (2002). “한국 사회복지학계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적 고찰.” 『상황과 복음』. 13. 33-46.
- 이경직 (2004). “기독교 진리론의 모색.” 『신앙과 학문』. 9(2). 241-271.
- 이숙중 (2005). “신학과 사회복지학의 합류의 중요성과 대사회적 과제 및 전망.” 『신학과 사회』. 19. 29-47.
- 이원규 (2003). 『기독교의 위기와 희망: 종교사회학적 관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이재열 (2008). “사회과학의 연구방법.” 김광억 편. 『세상읽기와 세상만들기: 사회과학적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배 (2008). 『겐 월버와 신학: 홀아키적 우주론과 기독교의 만남』. 서울: 시와진실.
- 전중환 (2010). 『오래된 연장통: 인간 본성의 진짜 얼굴을 만나다』. 서울: 사이언스 북스.

- 정기철 (2004). 『해석학과 학문과의 대화』. 서울: 문예출판사.
- 최재천·주일우 (2007). “통섭의 꿈: 지금, 여기서 ‘지식의 통섭’을 이야기하는 이유.” 최재천, 주일우 편. 『지식의 통섭-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5-9.
- 홍경준 (2000). “사회복지학 연구방법론에 대한 평가와 제안.” 『사회과학연구』. 26. 117-136.
- 홍성욱 (2006).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대화: 역사를 통해 본 접점과 상호작용.” 김용석 외. 『인문학의 창으로 본 과학』. 서울: 한겨레출판.
- 홍성욱 (2007). “21세기 한국의 자연과학과 인문학” 최재천·주일우 편, 『지식의 통섭: 학문의 경계를 넘다』. 서울: 이음. 275-297.
- Artholzer, R. (1986). *Plaedoyer fuer eine biblische Seelsorge*. 이해란 역 (2005). 『심리치료와 성경적 상담』. 서울: CLP.
- Ayala, Francisco J. (2010). *Am I a Monkey?: Six Big Questions about Evolution*.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노혜숙 역 (2011). 『내가 원숭이라구. 고양이: 아니마』.
- Barbour, Ian G. (2000). *When Science Meets Religion*. 이철우 역 (2002).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 김영사.
- Berman, Harold J. (2007). “Judeo-Christian Versus Pagan Scholarship”, in: Kullberg, Kelly M. (Ed.) *Finding God at Harvard*. revised edition. Downer Grove, IL: IVP. 대덕만 역 (2011). “유대교-기독교적 학문 대 이교적 학문.” 『지성의 회심: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413-419.
- Booth, W. Colomb, Gregory G. and Joseph M. Williams (1995). *The Craft of Research*. 양기석 역 (2000). 『학술논문 작성법』. 서울: 나남출판.
- Bryant, J. la Velle, Linda Boggott, and John Searle (2005). *Introduction to Bioethics*. John Wiley & Sons. 이원봉 역 (2008). 『생명과학의 윤리』. 서울: 아카넷.
- Byrne, Herbert W. (n.d.). *Christian Approach to Education*. (3rd ed.) 신광현 역 (2005). 『기독교 교육학 총론』. 서울: 민영사.
- Creswell, John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 조홍식·정선욱·김진수·권지성 공역 (2008).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Eddington, Arthur (1928), *The Nature of the Physical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eyerabend, Paul (1975). *Against Methode: Outline of an anarchisitic theory of Knowledge*. 정병훈 역 (1987). 『방법에의 도전: 새로운 과학관과 인식론적 아나키즘』. 서울: 한겨레.
- Haight, John (1995). *Science & Religion*. 구자현 역 (2003). 『과학과 종교, 상생의 길을 가다』. 서울: 코기토.
- Hillery, G. A., Jr. (1986). “A Christian Perspective on Sociology.” in: De Santo, C. P. et al. (Ed.) (1986). *A Reader in Sociology: Perspectives*. Scottdale, PA: Herald Press. 159-170.
- Janesick, V. J. (1994). “The Dance of Qualitative Research Design: Metaphor, Methodolaty, and Meaning.” in: Denzin, N. K. and Y. S. Lincoln (Ed.) (1994).

-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Jensen, D. (1989). "Pathologies of Science, Precognition, and Modern Psychophysics." *The Skeptical Inquirer*. 13(2).
- Lincoln, Y. S. & E. G. Guba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 CA: Sage.
- Mansfield, Harvey C. (2006). *Manliness*. Yale University Press. 이광조 역 (2010). 『남자다움에 관하여: 남자다움은 진정 쓸모없는 것인가?』. 서울: 이후.
- Nash, Ronald R. (1998). *Faith and Reason: Searching for national Faith*. 이경직 역 (2003). 『신앙과 이성』. 서울: 살림.
- Newman W. L. and L. W. Kreuger (2003). *Social Work Research Method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lications*. Boston, MA: Allyn and Bacon.
- Padgett, Deborah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Rewards*. 유태균 역 (2001).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나눔출판.
- Palmer, Richard E. (1969). *Hermeneutic: Interpretation theory in Scheiermacher*. 이한우 역 (1995).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Polkinghorne, Donald (1983). *Methodology for the Human Science: Systems of Inquiry*. 김승현 · 이경숙 · 심미선 · 황치성 공역 (2003). 『사회과학방법론』. 서울: 일신사.
- Shermer, Michael (2006). *Why Darwin Matters: The Case Against Intelligent Design*. 류 운 역 (2008). 『왜 다윈이 중요한가』. 서울: 바다출판사.
- Siegfried, Tom (2006). *A Beautiful Math: John Nash, Game Theory, and the Modern Quest for a Code of Nature*. 이정국 역 (2010). 『게임하는 인간 호모루두스』. 서울: 자음과모음.
- Stainback, Susan & William Stainback (1988). *Understanding & Conducting*. 김병화 역(2000). 『질적연구의 이해와 실천』. 재판. 서울: 특수교육.
- Tashakkori, Abbas and Charles Teddlie (1998). *Mixed Methodology: Combin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염시창 역 (2004). 『통합연구방법론: 질적 양적 접근방법의 통합』. 서울: 학지사. 제1장과 2장 참조.
- Van Engen, Charles (1996). *Mission on the Way*. 박영환 역 (2004). 『미래의 선교 신학』. 인천: 도서출판 바울.
- Vonhoozer, Kevin J. (1993). "세계는 과연 무대로서 적합한가? 신학, 문화 그리고 해석학." in: *God and Culture*. Carson, D. A. and J. D. Woodbridge. (Ed.) (1993). 박희석 역 (2001). 『하나님과 문화』.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Wallerstein, I. (2004). *The Uncertainties of Knowledge*. 유희석 역 (2007). 『지식의 불확실성: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과주: 창비. 유희석 (2007). "유희석의 말: 역사적 사회과학과 '두 문화' 담론-『지식의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243-275.
- Wilber, Ken (1996). *A Brief History of Everything*. Boston: Shambhala.
- Wilber, Ken (1998). *The Marriage Sense and Soul: Integrating Science and Religion*. New York: Random House.

- Wilber, Ken (1998). *The Marriage of Sense and Soul*. 조효남 역 (2000). 『감각과 영혼의 만남』. 서울: 범양사.
- Wilber, Ken (2001). *Eye to Eye: The quest for the new paradigm*. (revised 3rd ed.). 김철수 역 (2004). 『아이 투 아이: 감각의 눈 이성의 눈 관조의 눈』. 서울: 대원출판.
- Willard, Dallas (Ed.) (2010). *A Place for Truth*. 최효은 역 (2011).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 서울: IVP.
- Wilson, Edward O. (1978). *On Human Nature*. 이한음 역 (2000). 『인간 본성에 대하여』. 서울: 사이언스북스.
- Wilson, Edward O. (1980). *Sociobiology*. (Abridged edition). 이병훈·박시룡 공역 (1994). 『사회생물학 I』. 서울: 민음사.
- Wilson, Edward O. (1984). *Biophilia*. 안소연 역 (2010). 『바이오피리아』. 서울: 사이언스북스.
- Wilson, Edward O. (1998). *Consilience: The Unity of Knowledge*. 최채천·장대의 공역 (2005). 『통섭: 지식의 대통합』. 서울: 사이언스북.

ABSTRACT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s

–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

Sang Woo Kang(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In the present days, most of the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s are inclined to the research method of positivism(so-called, methodolatry = method + idolatry). Because the method of (logical) positivism pursu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it excludes concept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On the other hand, since Christian social welfare seeks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social welfare, applying the research method of positivism to develop a method of Christian social welfare would not be suitable.

How should we approach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 There are three considerations to follow. (1) Method of positivism is not the only approach to this research. Since there are ‘Many ways of knowing’ in social welfare, we should consider other approaches of method in order to develop the knowledge of social welfare. (2) Significantly, Christian Social Welfare has distinct academic identity based on Christian faith. (3) Many Researchers such as Ken Wilber and Edward O. Wilson, based their world-views to integrate between their faith or belief and the academic knowledge.

Therefore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 should not be inclined to specific approach of research methods, but adhere to true academic identity.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ers should base their Christian faith as their world-views. Keep in mind that as all truth is

42 『신앙과 학문』. 17(1).

God's truth, all research methods are God's.

Key Words: Christian social welfare. Christian worldview. research method.
(logical) positivism.